

논술고사 문제지 (인문계열)

[논술고사 시간 10:00 ~ 12:00]

| 모집단위 | 학부과 | 수험번호 | 성명 |
|------|-----|------|----|
|------|-----|------|----|

【수험생 유의사항】

1. 답안 작성 시 제목은 달지 말 것.
2. 수험번호, 성명 등 자신의 신상과 관련된 사항을 답안에 드러낼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함.
3. 답안 작성 시 필기구는 흑색 펜, 샤프 또는 연필을 사용할 것. (청색, 적색 펜 등 사용 불가)
다만, 수험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마킹은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할 것.
4. 문제지와 답안지의 문제 번호가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할 것. (불일치 시 0점 처리)
5. 답안의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함.
6. 답안 수정은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원고지 교정부호를 사용하여야 함. (수정테이프는 사용할 수 없음)
7. 각 문제의 규정된 자수에서 200자를 초과하거나 200자 이상 부족할 시 감점 처리함.



□ 제 시 문 □

[가] 여러 가지 정치체제의 본성과 속성을 연구하려는 사람은 우선 폴리스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폴리스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다른 전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복합체다. 폴리스는 시민들로 구성된 복합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민이 무엇인지를 고찰해야 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시민이란 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사람들 사이의 의견이 서로 달라, 민주 정체(政體)에서 시민인 사람이 과두 정체에서는 시민이 아닌 때도 더러 있곤 하다.

귀화한 시민처럼 이례적인 방법으로 시민이 된 사람들을 제외하면, 일정한 장소에 거주한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재류 외국인과 노예도 시민과 같은 장소에 거주하지만 시민은 아닌 것처럼 말이다. 고소하거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고 해서 시민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런 권리는 양국 간의 조약에 의해 보호받는 외국인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제한된 의미의 시민이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시민으로 등록되기에 너무 어린 아이나 시민으로서의 의무에서 면제된 노인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이와 노인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민이지만, 아이에게는 ‘나이가 차지 않은’, 노인에게는 ‘나이가 지난’ 등의 말을 덧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제한 조건이 없는 의미에서의 시민을 찾고 있다.

시민의 가장 큰 특징은 재판 업무와 공직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어떤 공직은 연임이 불가능해서 같은 사람이 두 번 다시 취임할 수 없거나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취임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다른 어떤 공직들, 이를테면 배심원이나 시민 전체가 참가하는 민회 회원직은 임기 제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는 배심원과 민회 회원들은 공직자가 아니며,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들이 공직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최고 권한을 가진 자들을 공직자 범주에서 제외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아닌 게 아니라 배심원과 민회 회원들을 모두 포괄하는 명칭이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 그것을 ‘임기 제한이 없는 공직’이라고 부르기로 하고, 그런 공직에 참여하는 시민을 공직자라고 불러서 구분하기로 하자.

정치체제들은 서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민도 정치체제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지금 정의한 시민은 민주 정체에 가장 잘 맞지만, 다른 정체에서는 필연적으로 시민인 것은 아니다. 다른 폴리스들에서는 민중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민회가 없는 경우도 있고, 공직자만이 소송을 전담하여 말아 법정에서 재판하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에 대한 우리의 정의는 이런 폴리스들의 경우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민주 정체 이외의 정체에서는 임기 제한이 없는 공직자가 아니라 임기 제한이 있는 공직자가 민회 회원과 배심원이 되고, 이들 중 일부 또는 전부에게 의결권과 일부 사건 또는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주어진다. 따라서 의결과 재판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폴리스의 시민이고, 폴리스는 자족한 삶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만큼 많은 수의 시민으로 구성된 집합이다.

[나] 정의 사회 구현을 위해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하듯이 아름다운 말글 생활을 위해 ‘순화’ 혹은 ‘바른 말 쓰기’를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에서 ‘무전유죄 유전무죄’란 말이 있듯이 말에서는 ‘유권유언 무권무언’이 강요된 면이 있다. 순화와 바른 말 쓰기 운동은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의해 주도되어 주로 사회적 권력이 없는 이들에게 강요된다. 다른 말로 하면 배울 만큼 배운 이들이 못 배운 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소위 ‘노가다판’으로 불리는 공사 현장, 그리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인쇄소와 실밥이 사방으로 날리는 봉제 공장은 고도로 숙련된 기술자들의 활동 영역이다. 이 분야의 기술을 배운다는 것은 각종 도구와 기계의

사용법을 배운다는 것이고, 그 사용법은 그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가진 이들의 언어로 되어 있다. 근대 문물을 일본을 통해 받아들여야 했던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이 분야의 용어가 온통 일본어로 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순화와 바른 말 쓰기 운동의 화살이 이들을 향하게 된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해 보면 정작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은 사회적 권력을 가진 이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다. 학회에 가 보면 모든 용어는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말은 조사와 어미뿐이다. 심지어는 아예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하기도 한다. 의사들은 문진은 우리말로 하면서 진료 기록지에는 알 수 없는 말로 휘갈겨 쓴다. 의학 드라마에서 의료인들은 영어로 된 용어로 소통하고 자막은 친절하게 그 뜻을 알려 주기까지 한다. 법조인들은 일제 강점기부터 써 오던 법률 용어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다. 이들의 말에 대한 지적과 함께 이들 스스로도 말에 대한 자성이 있지만 그 목소리는 크지 않다.

신라의 설총이 만들었다고 전해지는 이두는 놀랍게도 조선 말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그런데 이두는 한자로 쓰기는 하지만 온전한 한문은 아니다. 어순도 우리말식으로 바꾸고 필요하면 한문에는 쓰이지 않는 조사와 어미도 넣는 엉터리 한문이다. 오늘날로 치면 ‘콩글리시’와 같이 영어는 영어인데 우리끼리만 잘 통하는 영어와 비슷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 관리들과 장사꾼들이 대대로 물려 쓰면서 그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명맥이 유지된 것이다.

오늘날 여러 분야의 ‘쟁이’들이 쓰는 말투를 이두에 빗대기도 한다. 전문용어들은 모두 다른 나라 말을 쓰면서 조사와 어미만 우리말로 하니 그리 표현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인쇄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도무송’(Thomson)*과 재봉 일을 하는 이들의 ‘나나인치’(71)**는 아주 낮은 단계의 현대판 이두라 할 수 있다.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의 소위 ‘보그체’는 극단적인 이두의 단면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의사와 과학자 등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이들과 학문하는 이들의 전문 용어는 죄다 외국어를 써 이두의 또 다른 전형을 보여 주기도 한다.

그런데 현대판 이두가 그들만의 세상에서 사용된다면 과도한 비난의 대상이 될 일은 아니다. 가끔씩 길을 가다 ‘도무송 씨’와 ‘나나인치 씨’를 만나기는 하지만 광고를 보다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만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 세계에 뛰어들지 않는 한 그 뜻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의 맛과 그름을 굳이 논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정확하고 빠른 소통을 가장 중요한 언어의 본질적 가치로 여기고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그들만의 세상을 인정해 줄 필요도 있다. 그들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런 말들을 쓸 일도 없으니 더더욱 그렇다.

*도무송(Thomson): 인쇄 관련 기계를 만드는 회사명을 일본식으로 부른 것.

**나나인치(71): 특수한 재봉틀의 모델 번호 ‘71’을 일본식으로 부른 것이 변형되어 쓰인 것.

[다] 현대 사상의 기본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불평등하다. 인간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일생 동안의 지위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도덕적 명제가 제기되었다. 오랜 투쟁 끝에 마침내 사회는 지적으로 우수한 자는 최고의 지위까지 올라가고, 지적으로 열등한 자는 최하의 지위까지 내려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지적으로 우수한 사람이나 열등한 사람이나 모두 자신에게 맞는 의복을 입게 된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손으로 해냈던 옛날의 제조 과정이 점차 기계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수공업이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대신 기계공장, 대규모 제조업이 발흥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숙련과 비숙련 사이의 구분이 점점 뚜렷해졌고 드디어 전체 사회 자체가 분리되었다. 즉 기술진들의 지위는 그들이 다루고 있는 기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계속 상승하였고, 단조로운 일을 하는 작업자들의 지위는 그들이 책임 맡은 일이 점점 단순해짐에 따라 계속 하락하여 갔다.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차 늘어났지만, 비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마침내 비숙련 노동자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다. 비숙련 노동자의 일은 단순,

반복적일 뿐이어서 그들의 작업은 점차 기계화된 방법이 대신 수행하게 되었다. 기계는 더욱 용이한 형식으로 단순한 작업을 처리하였고 이에 따라 하급 노동자의 해고 현상이 급속히 확대되었다. 기계의 발전은 놀라운 것이었다. 그리하여 옛날에 기계화 산업이라고 불렸던 사업은 새로운 형태의 자동화라는 단어로 변형되기 시작했다.

제조업에서 자리를 차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단조로운 사무직이나 유통업에 정착하였다. 공장에서 시작된 기계화는 그곳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무실과 상점에까지 기계화가 침투해 갔다. 사무실에서 회계직 종사자와 타이피스트는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계산은 계산기가 맡게 되었고 타이피스트 역시 더 이상 말과 문자 사이를 매개해 주는 중개자로서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현대적인 방식의 셀프서비스가 급속히 보급되자 상점에서 점원의 수도 격감하기 시작했다.

옛 귀족주의가 붕괴하고 새로운 귀족주의가 탄생하는 잠깐의 시기 동안 하인은 사라졌었다. 이 평등주의 시대에는 어느 누구도 동료 인간의 시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지 않았다. 즉 하인이 주인만큼 훌륭할 수도 있다는 믿음이 분명했던 과도기였다. 평등주의를 조장한 조건들이 사라지자, 평등주의가 내세운 주장 중의 하나였던 하인 고용 금지를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우수하다는 생각이 하인직을 부활시켰다.

새로운 제도가 실시되면서 계급 간의 격차가 더욱 커졌다. 계층화는 사회의 각 수준에서 재능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다. 능력에 따라 엘리트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서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완전하게 사회를 통제한다. 오직 능력이라는 유일한 기준으로 지배되는 사회에서 하층에 위치한 사람들은 저항 한 번 하지 못한 채 항거할 능력 또한 영구적으로 박탈당해 절망의 수렁에 빠지는, 암울한 디스토피아처럼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라] ‘君子不器’(군자불기)라는 구절의 의미는 대단히 분명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듯이 그릇이란 각기 그 용도가 정해져서 서로 통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그릇을 밥그릇으로도 쓰고 국그릇으로도 쓴다고 우길 수 있습니다만, 여기서 그릇(器)의 의미는 특정한 기능의 소유자란 뜻입니다. 군자는 그릇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군자의 품성에 관한 것이며 유가 사상이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기도 합니다. 또 이 구절은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를 논하면서 부정적으로 읽음으로써 널리 알려진 것이기도 합니다. 베버의 경우 기(器)는 한마디로 전문성입니다. 베버가 강조하는 직업윤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전문성에 대한 거부가 동양 사회의 비합리성으로 통한다는 것이 베버의 논리입니다. ‘군자불기’를 전문성과 직업적 윤리의 거부로 이해했습니다. 분업을 거부했고, 관료성을 거부했고,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학적 훈련을 거부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동양 사회가 비합리적이며 근대 사회 형성에서 낙후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라는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막스 베버의 논리가 자본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전제하고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논리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읽은 사람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을 동력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를 재론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논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뛰어넘고 그것의 대안적 모색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바로 그 점과 관련하여 이 구절을 재조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전문성을 강조하기는 막스 베버와 다르지 않습니다. 전문성은 바로 효율성 논리이며 경쟁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자본가는 전문성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전문화를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성공한 자본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것이지요. 자본가는 어느 한 분야에 스스로 옥죄이기를 철저하게 거부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자본이 벌이고 있는 사업 영역을 점검해 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크게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으로 작게는 다각적 경영, 문어발 확장이 그런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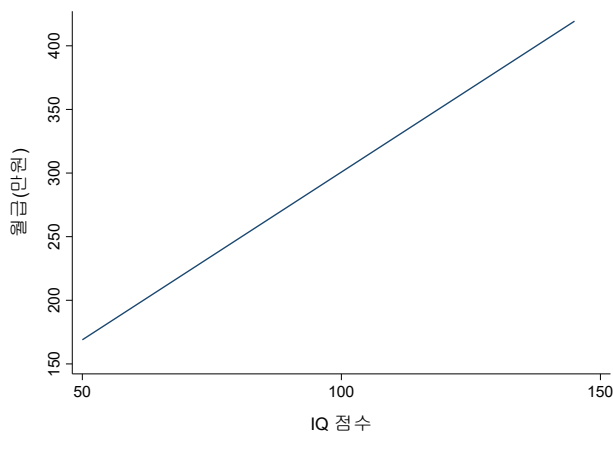
□ 문 제 □

【문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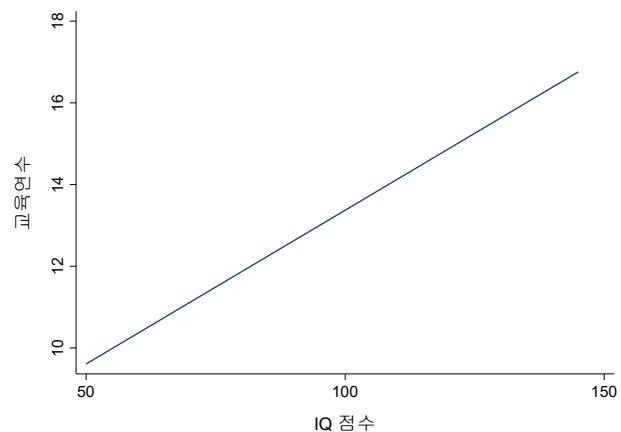
제시문 [가]의 주장을 250자 내외로 요약한 뒤, 주된 견해나 관점이 [가]와 다른 제시문을 [나]~[라]에서 모두 찾아 [가]와 각각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시오. (600자 내외, 배점 30점)

【문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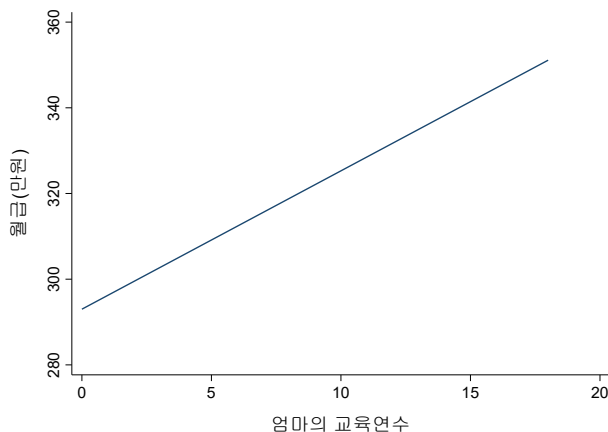
[그림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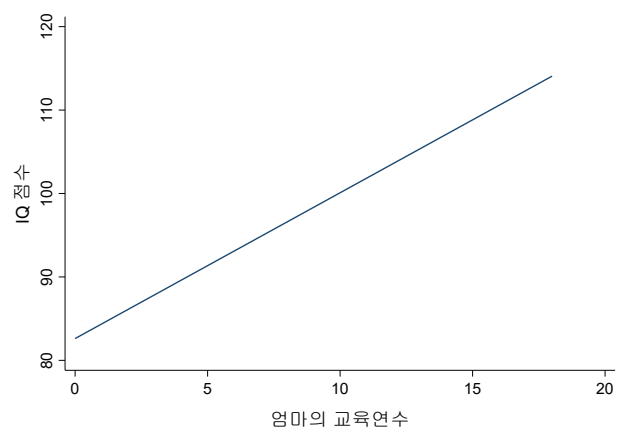
[그림 2]



[그림 3]



[그림 4]



위 그림에서 [그림 1]과 [그림 2]는 근로자 본인의 변수들 간의 관측된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3]과 [그림 4]는 근로자 본인의 변수와 엄마의 교육연수(教育年數) 간의 관측된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엄마의 교육연수가 근로자인 자녀의 월급과 교육연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어떤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연구 결과와 주어진 네 개의 그림을 이용하여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IQ의 증가가 월급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시오. (400자 내외, 배점 20점)

【문제 3】

<보기>는 어떤 글의 내용이다. 이 글의 주제에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가]~[라]의 모든 제시문을 활용하되 주된 견해나 관점이 자신의 입장과 같은 제시문의 논거는 지지하고 자신의 입장과 다른 제시문의 논거는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시오. (1,000자 내외, 배점 50점)

<보기>

세상 사람들은 모두 맹상군(孟嘗君)이 선비를 얻는 데 능하여 선비들이 그에게 모여들었고, 마침내 그들의 힘 덕분에 사납고 무시무시한 진(秦)나라에서 도망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아, 슬프구나! 맹상군은 단지 계명구도(鷄鳴狗盜)*의 우두머리일 뿐이니, 어찌 어진 선비를 얻었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고, 제(齊)나라의 강성함에 의지하여 참된 선비만 얻었더라면 마땅히 임금이 되어 진나라를 제압하였을 것이니, 계명구도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었겠는가? 계명구도의 무리들이 그의 문하에서 나왔으니, 이것이 진정한 선비들이 찾아가지 않았던 까닭이다.

*계명구도(鷄鳴狗盜): 닭 울음소리와 개 짖는 소리를 똑같이 흉내 내는 데 뛰어난 재주 또는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을 이르는 말.